

금남로 사진관

코로나 1년... 마스크 언제쯤 벗을까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지 1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은 마스크나 소독제 등을 사용하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며 감염에 대비했다.

국가적으로도 외출이나 여행 등을 자제하거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반갑게도 국내 외 의료계 및 제약사 등의 시험단계를 거친 백신과 치료제 등이 속속 등장하며 코로나 19 퇴치에 희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게 현실이다.

광주 도심 길가 한쪽에 사용한 후 누군가 흘리고 간 듯한 마스크가 떨어져 있다.

일상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마스크. 하루속히 마스크 없이 거리를 다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해본다.

/글·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공군 제1전비, 동절기 혈액 수급 돕기 '사랑의 헌혈운동' 진행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동안 '사랑의 헌혈운동'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헌혈량 감소와 동절기 혈액 수급 불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공>

적십자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적십자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위원장 우영인)가 최근 2021년 적십자 특별회비 2500만원을 적십자 광주전남지사(회장 박홍석)에 전달했다. 특별회비는 자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실시한 모금에 마련됐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송원대, 광주시 5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업무협약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는 지난 19일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5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 발전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송원대 제공>

순천시·구례군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협력 우수지구 선정

순천시와 구례군이 교육부가 선정한 미래형 교육자치협력 우수지구로 선정됐다.

2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순천시와 구례군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한 점이 인정돼 교육부로부터 미래형 교육자치협력 우수지구로 선정됐다.

순천시는 학교 교사와 마을 교사가 지역의 환경과 역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협업을 통한 수업을 했다. 특히 민간 주도의 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전폭적인 모범사례를 창출했다.

지난해 코로나19와 수해로 지역사회 상처가 깊었던 구례군은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 중심 교육과정인 '구례맥(脈)'을 개발해 학교에 제공하는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순천시와 구례군을 방문해 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장을 전달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으로 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가 되돌아오고 정주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면서 "전남의 최대 위기인 지역소멸을 넘을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한 협력과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대성불패... '구대성은 지지 않는다'

투수로서 여정 담은 에세이 출간

현역 시절 '일본 킬러', '대성 불패'의 애칭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야구인 구대성(52)의 여정을 담은 에세이 '구대성은 지지 않는다'가 최근 출간됐다.

원손 투수 구대성은 한국, 일본, 미국프로야구를 거쳐 호주세미프로리그 등 4개 나라에서 편 최초의 한국인이다.

국가대표로 한국 야구대표팀의 2000년 시드니올림픽 동메달 획득과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신화 달성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 1999년 한화 이글스에 창단 첫 한국시리즈 우승을 선사하는 등 한국 최고의 투수로 이름을 날렸다.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식지 않는 열정으로 마운드에 올랐던 구대성은 이 책에서 도전정신, 승리욕, 의지와 노력 등 삶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자세를 담담히 써 내려갔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불새 2020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양코리 카이로스	10 SBS 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공감 스페셜 55 UHD 숨터	00 바람피면 죽는다(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인간극장 스페셜	00 12 MBC 뉴스 20 반짝이는 프리채널 50 뽀뽀뽀 친구친구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날아라 개천용(재)
[1]	00 TV쇼 진품명품(재)		20 푸리가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명탐정 핑크퐁과 호기 45 린다의 신기한 여행			
[3]	00 팍 잡아 30 열린채널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기본 좋은 날(재)	00 특특 보험설계(재)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또봇 V 2 15 캐치! 티니핑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다큐플러스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어쩌다 마주친 그 개(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전국 TOP 10 가요쇼(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비밀의 남자	05 생방송 연극복권 720+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누가 뭐래도	30 펫 비타민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바람피면 죽는다	20 창사50주년 특집 VR 휴먼 다큐 너를 만났다 로맨스	00 맛남의 광장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40 명만 빌리지	30 MBC 집콕 영화제 윤희에게	35 전설의 무대-아카이브(재)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12]	10 이슈 픽 쌤과 함께(재)	15 통합뉴스룸 ET(재) 45 사랑의 가족(재)	25 콘텐츠 박물관 스페셜 건강한 집 세계의 에코하우스	15 나이트라인 45 한국의 발견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형사 가제트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7:45 최고다! 호기심 딱지
07:00 띠띠뽀 띠띠뽀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07:15 로보가 폴리	12:25 지식채널e	19:00 아바타-아왕의 전설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30 클래스 e	19:30 자이언트 팽TV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3:00 명의	19:45 다크 잇!
08:00 당동맹 유치원	13:55 EBS 스페이스 공감	20:35 아주 특별한 기행
08:30 마법버스 타요	14:45 도라도라 영어나라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워든지 뮤직박스	15:15 도전! 나도 과학자	<한시로드, 영웅호걸전-삼국지의 영웅들>
09:00 꼬미와 베베	15:45 레인보우 루비	21:30 한국기행
09:15 도깨비 가족	16:00 방귀대장 뽕뽕이(재)	<그들이 사는 세상 4부-청산도 달팽이의 꿈>
09:30 물랑	16: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21:50 파란만장
09:40 우리집 유치원	16:30 당동맹 유치원(재)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0:30 한국기행(재)	16:50 해외와 해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1일(음 12월 9일 己巳)

<p>36년생 연유하는 근원을 알게 되리라. 48년생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60년생 오래 가지는 못 할 것이니 지켜보고 있으면 된다. 72년생 계속 유지 될 수는 없음을 알아야 한다. 84년생 객관성에 근거하여 철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96년생 체면이나 허욕을 버리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3, 27</p>	<p>42년생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망설이지 않는 것이 낫다. 54년생 확실하다면 사전에 변경해도 무방하다. 66년생 작가가 실행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느니라. 78년생 구상만 할 한다면 충분히 피해야 할 수 있다. 90년생 일관된 마음으로 지속되어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02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9, 32</p>
<p>37년생 부수적인 것에 얽매어서 주된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다. 49년생 부족함을 채우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자. 61년생 당황하지만 않는다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73년생 평생시대로만 진행한다면 무난한 결과를 낳으리라. 85년생 전혀 보지 못했던 특이점이 나타나리라. 97년생 편하게 생각 해도 상관없으니 눈치 볼 필요 없다. 행운의 숫자 : 55, 40</p>	<p>43년생 순탄할 것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도 된다. 55년생 매우 귀중하다고 볼 수 있으니 여과 없이 참고함이 나올 것이다. 67년생 역발상이 빛날 수다. 79년생 이루어진 바나 다름없다. 91년생 귀인이 도우니 꾀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이다. 03년생 과정은 힘들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익이 따를 것이니 행함이 이루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84, 22</p>
<p>38년생 표현은 그렇게 하겠지만 속내는 따로 있음을 알라. 50년생 실기 된 것을 회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라. 62년생 검증된 계획이라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74년생 순조로움을 이끄는 선행 조짐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86년생 지지 기반이 성벽 같이 굳어지는 양태이다. 98년생 일관되게 진행되는 것이 정답이다. 행운의 숫자 : 69, 46</p>	<p>32년생 앞뒤 가지리 말고 목표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 44년생 마음먹은 대로만 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56년생 악순환의 연걸 고리는 과감하게 끊자. 68년생 예기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80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발전은 도모할 수 있다. 92년생 생관이 내심을 드러낼 필요는 없으니 알고만 있으면 된다. 행운의 숫자 : 56, 49</p>
<p>39년생 자신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어는 것보다도 중요하다. 51년생 여러 번 신경 써야 하는 수고로움이 보인다. 63년생 누워서 침 뱉기에 비유할 만하다. 75년생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면 궁극적으로 해결되리라. 87년생 체면을 의식하지 말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때다. 99년생 본전만 챙기더라도 선방한 것으로 위안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88, 43</p>	<p>33년생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함이 유리하다. 45년생 의견을 개진한다면 바람직한 반응이 있으리라. 57년생 정성을 들인다면 결과를 확보도 가능하다. 69년생 어떻게 행하느냐하는 방법론에 따라서 전연 다른 상태가 될 수도 있다. 81년생 끈질긴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93년생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지혜만 있으면 금상첨화이다. 행운의 숫자 : 87, 26</p>
<p>40년생 긍정적인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다. 52년생 생각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64년생 불가피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 낫다. 76년생 번거롭기는 하지만 해결하면서 얻는 바가 많아서 보람을 느낄 것이다. 88년생 능력에 맞는 계획과 방안이 필요하다. 00년생 실속이 없다면 미련 갖지 말고 버려라. 행운의 숫자 : 17, 36</p>	<p>34년생 원만한 소통이 필요한 때이니라. 46년생 서로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동 작업은 가능하리라. 58년생 불협화음이 보인다면 객관적으로 대처해야 옳다. 70년생 우연을 가장한 방문자가 보이니 만반의 준비를 해두라. 82년생 한계선을 허용한다면 수습하기 어려워진다. 94년생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이든 접하는 것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70, 17</p>
<p>41년생 벗어나려는 노력하지 않는다면 제자리걸음만 하게 된다. 53년생 정성을 다 한다면 회복하게 될 것이다. 65년생 진행에 탄력이 붙는 시세에 놓여 있다. 77년생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미리 나아가 맞이하여라. 89년생 사소한 원인으로 경시하지 말고 예의 주시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01년생 눈여겨왔던 것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행운의 숫자 : 53, 87</p>	<p>35년생 확실히 성취하는 시세이다. 47년생 결심은 이미 약속되어있는바나 마찬가지이니 자분히 용대해도 된다. 59년생 확실하게 뜬 고치는 것이 나를 것이다. 71년생 드러나지 않은 정황까지 인식할 수 있어야겠다. 83년생 빈틈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마도 끼어들지 못하리라. 95년생 맹점을 보완했을 때 새로운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5, 03</p>